

우로보로스, 아난타, 케찰코아틀, 인류학자인 제레미 나비의 《우주뱀 =DNA》에 나오는 여러 뱀들 가운데 일부다. 우로보로스는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이다. 말하자면 '나에게 끝은 곧 시작'이라는 뜻이다. 이 뱀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내고 스스로를 죽인다. 따라서 불사, 지체를 나타낸다. 아난타는 태초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우주의 뱀이다. 천개의 머리를 양산처럼 달고 있다. 이 머리들은 아난타 위에 누워서 명상하는 비슈누를 가려주는 차양 역할을 한다. 비슈누는 힌두교에서 만물의 창조자이자 세계의 유지신이다.

DNA는 뱀처럼 생긴 변신의 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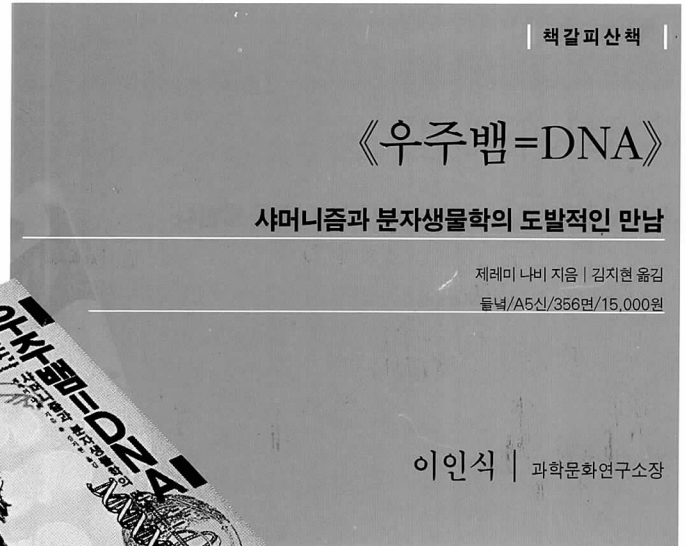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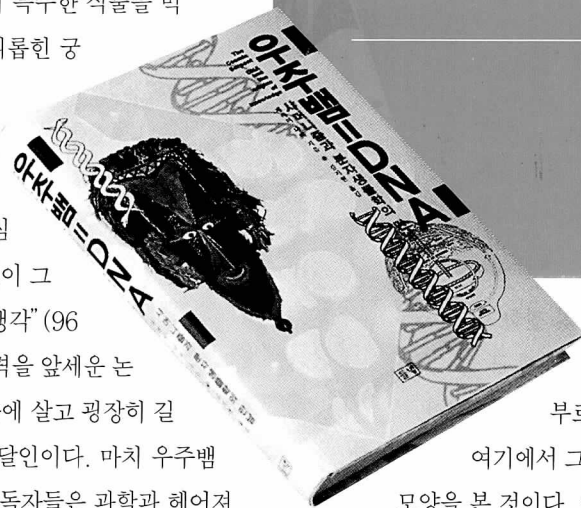
세계 신화에서 우주의 뱀은 창조신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뱀은 생명의 본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NA)과 정녕 관계가 없는 것일까? 2년간 페루 아마존에 살면서 토착민들이 특수한 식물을 먹고 환각에 빠지는 과정을 연구하던 나비를 괴롭힌 궁금주이었다. 그는 분자생물학에 관해 무지한 인물이 아니었다. 책의 곳곳에 DNA 분자구조와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을 정도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에 두루 관심을 가진 셈이다. 그런 그가 "DNA의 이중나선이 그 형태에 있어 두 마리 휘감긴 뱀과 닮았다고 생각"(96쪽)하고 흥미롭지만 과학적 검증보다는 상상력을 앞세운 논리를 전개한 끝에 "요약하자면, DNA는 물 속에 살고 굉장히 길면서 작고, 하나면서 둘인 뱀 모양의 변신의 달인이다. 마치 우주뱀처럼"(153쪽)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여기서 독자들은 과학과 헤어져야 한다. 나비는 과학을 뛰어넘는 직관으로 아마존의 샤먼들이 환각물질을 마시고 환영에서 보는 뱀들과 DNA 이중나선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가설(278쪽)의 정립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생물학을 쌍안경을 보듯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나는 DNA 뱀을 보았다"(285쪽)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나비는 식물학에 대한 토착민들의 전문적 지식이 환각에 기원한다는 것을 서구 지식의 두가지 근본적인 원칙과 모순되지 않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75쪽). 첫째, 환각은 실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구 지식은 환각을 기껏해야 환상으로, 최악의 경우 병리현상으로 여긴다. 둘째, 식물은 인간처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식물이 사람처럼 정신적 이미지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비주의를 통해 생명의 비밀 풀어나

나비는 식물의 의사소통이라는 수수께끼가 과학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깨닫고 우주뱀, DNA 분자구조, 아마존 토착민들의 지식 사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상관관계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결국 "환영 속에서 사

이 책은 DNA가 물 속에 살고 굉장히 길면서 작고, 하나면서 둘인, 마치 신화 속의 우주뱀 모양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독자들은 과학과 헤어져야 한다. 지은이는 우주뱀이라는 샤먼의 비유적 설명을 생물학자들이 도출한 결론과 만나게 함으로써 서로 꼭 닫힌 생물학과 인류학에 소통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



만들은 의식을 분자 수준까지 끌어내려 그들이 정기 또는 정령이라 부르는 DNA 관련 정보에 접근한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은 이중나선과 꼬인 사다리, 염색체 모양을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천년 동안 샤먼 문화는 생물 원리가 모든 생명체에 동일하며 두 마리 꼬인 뱀 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왔다. DNA는 그들의 경이로운 식물학과 의학 지식의 원천이며, 이 지식은 오직 초점이 흐려진 그리고 합리성이 없는 의식상태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이들 문화의 신화는 생물학적 상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샤먼의 비유적 설명은 생물학자들이 제공하기 시작한 묘사와 꽤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가설(207쪽)을 도출하게 된다. 책의 부제를 '샤머니즘과 분자생물학의 만남'이라고 붙일 만하지 않은가?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나비의 생물학 지식은 수준급이며 장마다 달아놓은 주석, 충실한 참고문헌 목록은 그가 학구적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요컨대 그의 가설이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결코 지적 유희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내가 말한 것이 과연 무언가 말한 것인지, 말한 것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291쪽)고 《장자》를 인용한 마지막 문장이 여운을 남긴다. ■

이인식씨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과학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매체에 과학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키워드》(아주 특별한 과학에세이) 《나노기술이 미래를 바꾼다》 등을 펴냈다.